

## 大學의 自律性



忠南大 總長 吳 德 均

오늘날 우리들은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轉換期에 처해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 걸친 거대한 變革은 당연히 전통적 價値體系의 전환과 근대적 市民意識과 行動樣式이 바야흐로 일대 挑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사회 하부 구조의 변화에 따르는 정신적·지적 상부 구조의 불가피한 변화는 당연히 敎育體系의 개편을 필연적인 결과로 등장시키고 있다. 특히 高度技術 産業社會로의 진전 양상은 우리 大學敎育의 일대 전환을 불가피하게 하고, 다양성의 수용과 자율성의 제고를 통하여 대학의 位相을 정립해 나가야 할 명제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이 양적으로 괄목할 만큼 발전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대학의 自律性에 입각한 個性과 特性을 지니지 못한 채, 획일적인 체계 속에 대학의 傳統이나 學風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哲學이나 理念이 정립되지 못한 채 격변하는 세류에 포류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他律의 구조 속에 안주해 온 대학이 자율적인 체질로 바뀌려면 참으로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함은 필연적인 과정이 아닐 수 없다.

대학은 眞理探究의 殿堂이기에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찍이 베를린大學 總長이었던 훔 볼트는 ‘大學은 세속적인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니 王은 대학의 진리 탐구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확약받고 상호 불간섭의 전통을 세워 大學 自律의 선구자가 되었던 것이다.

學問의 自由는 敎授의 가르칠 자유와 學生의 배울 자유로 나누어 지는데 그 자유에는 반드시 自律이 수반되는 것이며, 자유의 행사를 그르칠 때 規制를 받게 됨은 대학 사회라고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대학도 自律 能力이 없으면 他律의 고역을 치루게 되므로 자유를 가르치는 것도 좋으나 자율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大學生들이 學問의 民主化를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추구하거나 치외법권적인 행위로 나타낼 때 그것은 대학의 尊嚴性과 自律性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대학의 秩序를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자율이 정착될 수 있다는 인식을 大學人 모두에게 재고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대학의 自由나 權威는 어디까지나 自律性의 토대 위에 대학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大學 自律性의 정착은 敎權의 확립에서 미로소 가 능하다는 깊은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정치의 民主化와 경제의 開放化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學園의 民主化가 고조되고 있음은 시대의 흐름인 동시에 우리들의 자주적 노력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새로운 秩序의 창조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학의 自律性의 재고와 학원의 民主化를 지향해 나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인가?

첫째로 대학의 운영에 있어 權限과 責任을 분산시키고 폭 넓은 參與를 전제로 하는 分權化의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것으로서 권한의 분산과 참여의 확대를 도모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대학 구성원들의 내재해 있는 힘을 개방하여 타율적인 규제에 길들여져 온 統制主義의 남용을 과감히 탈피하는 데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며 自己規律에 의한 보다 개방적인 절차의 확립을 지향해야 한다.

오늘날 大學의 民主化가 강조되고 있는 보다 직접적인 동기는 정치의 民主化 요구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가 중대한 轉換期에 처해 있기에 이러한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大學敎育의 차원에서도 어떤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학은 그 기원부터 學問共同體로서의 本質을 뚜렷이 하였으며 학문의 자유를 그 필수적 조건으로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知性의 殿堂으로서 자유와 자율을 그 본질로 소중히 간직해 왔다. 오늘날의 大學 自治는 교수와 학생들의 학문하는 자유, 즉 機關의 組織 運營에 관한 의사 결정의 자율성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학의 민주화는 이상과 같이 敎育에 있어 分權化와 參與의 증대, 開放化와 自律性의 증대를 의미하며 그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촉진시키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새롭게 닦쳐오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인 自律性이 있어야만 敎育 현장에서의 參與意識이 고취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大學이 그 본래의 목적과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대학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 大學敎育의 質的 向上을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이 필수적 요건이며, 自律性의 정착은 이것을 지켜 나가려는 大學人의 自覺과 反省이 따라야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大學人의 손으로 대학의 權威를 회복하고 대학의 使命을 다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